

호텔·가구·여행 혜택 풍성… 지출 많은 곳 할부·할인 지원

카드사 내수촉진 전략

신한카드

가전·가구 최대 50% 할인
병원·등록금 무이자 할부 지원
국내외 호텔 제휴 프로모션
일본 여행객엔 캐시백 혜택

신한카드는 소비 밀집 업종에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내수침체 극복에 나서고 있다. 가전·가구 등 큰 소비를 앞둔 고객과 휴가철에 꼭맞는 혜택을 마련했다. 일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이자할부 혜택도 지원한다.

이달 신한카드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이자할부와 ‘슬림할부’ 기능을 지원한다. 슬림할부란 카드사에서 운영 중인 부분할부를 의미한다. 할부 기간 중 일부는 소비자가 이자를 지급하지만,

소노시즌 X 신한카드 캐시백 이벤트



소노시즌X신한카드 캐시백 행사 이미지.

/신한카드

나머지는 카드사가 부담한다. 상환기간을 늘리면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필수소비 영역에서 무이자할부와 슬림할부 중 선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차량정비 ▲약국 ▲손해보험 ▲종합·일반병원 ▲대학등록금 등이다.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의 경우 최대 12개월 슬림할부만 이용할 수 있다. 단, 무이자할부나 슬림할부를 사용하면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마다 할부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만큼 대학등록 할부는 별도의 점검이 요구된다.

일반소비 영역에서 할부 기능은 ▲백화점 ▲온라인 쇼핑 ▲항공사 ▲면세점 ▲호텔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를 동시에 겨냥했다. 가전과 의류·아웃도어 등 가맹점에서 할부를 제공하는 만큼 과도한 지출이 몰리는 시기에 적합하다. 가맹점별 구체적인 할부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구, 가전 영역 내 제휴 할인을 확대하면서 충성고객 확보에도 나섰다. 오는 31일까지 ‘이케아 카드’로 이케아 매

장 5곳(강동·고양·광명·기흥·동부산)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10만원을 캐시백한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신한카드 결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별도의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가 없다면 소노시즌과 쉐리집대, 에싸소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오는 27일까지 소노시즌 행사매장에서 신한카드를 이용하면 매트리스와 프레임 등을 최대 50% 할인하며 별도의 사은품도 증정한다. 아울러 쉐리집대와 에싸소파에서는 46% 할인 혹은 상품권을 증정한다. 전방위적인 마케팅보다 제휴사 혜택을 극대화했다.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제휴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한카드와 국내 주요 호텔간의 협업 행사를 눈여겨 볼 만 하다. 투숙기간 기준 오는 8월 31일까지 롯데호텔 부산과 파르나스 제주, 파라다이스시티, 그랜드 조선 제주 등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31일까지 메이플드호텔 서울에서 썸머 객실 프로모션을 운영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해외여행은 일본 여행객을 정조준했다. 신한 JCB카드 20% 캐시백을 시작으로 일본공항 면세점 결제 2000엔 캐시백, 빅카메라 최대 17% 즉시할인 등이 올해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다음해까지 운영하는 행사로는 ▲도쿄타워 입장권(30%)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 버스(30%) ▲돈키호테 할인 등을 준비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15일 “일상 영역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한 번에 큰 지출이 발생하는 가전, 가구 등 영역에서 할인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내수 활성화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3개월 새 150명 ↓… 저축은행 직원 급감

AI 도입에 단순업무 빠르게 축소
상반기만 150명 넘게 인력 감소
“중기·부동산 심사 인력 늘릴 것”

저축은행 직원수가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 디지털전환(DT) 바람이 불면서 저축은행도 대응에 나선 영향이다. 상담이나 단순심사 등의 업무를 인공지능(AI)이 대체하는 흐름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수는 9410명이다. 직전 분기 대비 153명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120명, 38명씩 떠났다. 본사로 직접 채용하지 않아 집계되지 않는 아웃소싱 인바운드 인력을 포함하면 인력 감소가 추가될 것이란 관측이다.

저축은행 종사자가 3개월 사이 150명 넘게 감소한 것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특히 비상금대출, 주부대출 등의 리테일(소매금융) 심사나 콜센터 단순상담 인력 등이 이탈할 경우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

다. 디지털전환이 빨라지면서 단순업무가 자동화된 만큼 인력 이탈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반면 임원의 수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저축은행 여신규모가 감소하면서 실무자보다 기업의 방향성을 논의할 베테랑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분기 저축은행의 임원 수는 732명으로 전분기 대비 5명 증가했다. 업계에서 임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OK저축은행이다. 1분기에만 6명 증가했다.

인력뿐 아니라 점포 또한 줄어들면서 대형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 점포수는 255곳이다. 지난 201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업과 상담서비스 기능만 제공하는 출장소와 사무소 등을 지점, 본점으로 통합했다. 지난 2023년 3분기를 기점으로 1년 6개월 동안 줄어드는 추세다.

저축은행이 몸집을 줄이는 주된 요인은 디지털전환이지만 업황악화 때문이기도 하다. 고금리 여파에 여신잔액을 축소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연체

율 증가도 순이익에 타격을 주면서 인력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향후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이 상승해도 과거 1만명 수준으로 회복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단순 상담보단 기업, 부동산 대출 심사 등 고급인력을 채용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선 저축은행이 효율성을 높이고 몸집을 줄이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언한다. 금융당국 또한 인수합병(M&A)을 통한 저축은행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체질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최근 OK저축은행의 상상인 저축은행 인수전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마다 론포트폴리오의 성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점진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에 욕망을 가리는 안목도 요구되는 만큼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5054개의 점포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은 지난 5월부터 4595개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여름 무더위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더위 쉼터를 8667개 영업점으로 확대한다.

저축은행도 일부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를 올해부터 246개 전국저축은행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은 폭염이 극심한 낮 시간 대를 포함한 지점 영업시간(통상 9~16시)다. 기간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IBK기업은행 ‘감사자문단’ 출범

IBK기업은행이 IBK 채신 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감사자문단’ 위원 6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상목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김정현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이종운 서강대학교 초빙교수, 전병복 IBK기업은행 감사, 최준목 한국CIA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IBK기업은행

6월 집값 상승 전환… 서울·수도권 강세

신축·재건축 중심 상승폭 확대
대출규제 여파는 이달 본격 반영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며 회복 흐름을 보였다. 서울과 수도권은 신축 및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하락세가 다소 완화된 상태다. 다만 이번 통계는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규제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7월 지표를 통해 확인할 전망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0.02%) 대비 0.14% 상승했다. 서울은 0.95%, 수도권은 0.37% 상승했고 지방은 -0.09%로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5월(-0.12%)보다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2.38%), 강남구(2.20%), 서초구(2.11%)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성동구(2.17%), 마포구(1.66%), 용산구(1.62%)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과천(1.54%), 용인시(1.33%), 성남 분당(1.29%)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인천은 연수구(-0.28%), 중구(-0.17%), 미추홀구(-0.11%)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전세가격지수는 전국 평균 0.03% 상

승해 보합에서 상승 전환됐다. 서울(0.24%)과 수도권(0.11%)은 상승했고 지방(-0.04%)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줄며 상승세가 나타났고 강동구(0.80%), 송파구(0.69%), 영등포구(0.39%), 동작구(0.45%) 등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월세가격지수는 전국 기준 0.06% 상승했으며 서울(0.24%)과 수도권(0.12%)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에서는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며 용산구(0.48%), 송파구(0.50%), 강동구(0.49%) 등에서 월세 상승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의 흐름은 불확실하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전세 수요의 추가 위축이나 월세 전환 가속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신축 및 재건축 단지는 높은 선호도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구축이나 외곽지역 단지는 상승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월세는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 수요 증가와 정주여건 우수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더울 땀 은행에서 쉬었다 가세요”

은행·상호금융권 등 1.4만개점
내달 말까지 무더위 쉼터 운영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자 은행과 함께 상호금융, 저축은행도 무더위 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업무가 없더라도, 낮 더위를 피해 잠시 쉬다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권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에 이어 지역의 상호금융, 저축은행 영업점도 무더위 쉼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 무더위 쉼터는



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저축은행도 여름철 무더위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9600개점에서 1만4000개점으로 확대된다. 업권별로 나눠보면 은행권은 총